

세계적 표준의 이면을 읽는 새로운 시각의 세계사

《대서양문명사》 펴낸 김명섭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김명섭 교수(38)가 펴낸 《대서양문명사》(한길사)는 ‘팽창, 침탈, 헤게모니’라는 주제로 대서양 문명이 세계적 표준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한다. 에게해-지중해-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대서양국가들의 보편적 표준, 즉 국제적 헤게모니 쟁탈의 역사는 ‘보편성의 신화를 창조하고 그것에 기초해 발전한 역사’이자 ‘세계적 표준의 상징’이라는 것이 김교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가 서술하는 대서양 문명사는 지리적 의미라기보다는 인문적 의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시공간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화의 파도를 타고자 하는 개인이나 국가, 반대로 그것에 저항하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세계화의 이면에 형성돼온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각으로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헤게모니, 표준의 배후에 있는 힘, 시간의 무게를 읽어내려는 김교수의 노력에는 역사를 통해 현실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대서양 헤게모니 형성의 역사 긴 호흡으로 서술해

시간의 무게를 읽어내려는 김교수의 노력은 사실상 대서양 시대의 포문을 연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1492)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먼저 대서양에 눈길을 돌린 것은 이슬람이었다. 대서양 주도권은 오스만투르크에서 비롯된다. 이슬람은 서기 630~750년 급속히 팽창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에스파냐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석권한다. 하지만 피레네 산맥을 넘자마자 프랑크군에게 대패하고 레판도

김명섭 교수의 《대서양문명사》는 에게해-지중해-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서구 문명의 표준이 어떻게 형성돼왔는지 서술한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미국적 표준이 지배하는 세계화 이면에는 헤게모니 쟁탈, 팽창, 침탈을 통해 비서구 세계를 주변으로 밀어버린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세계적 표준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화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김교수는 말한다.

해전에서 패해 대서양의 주도권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로 넘어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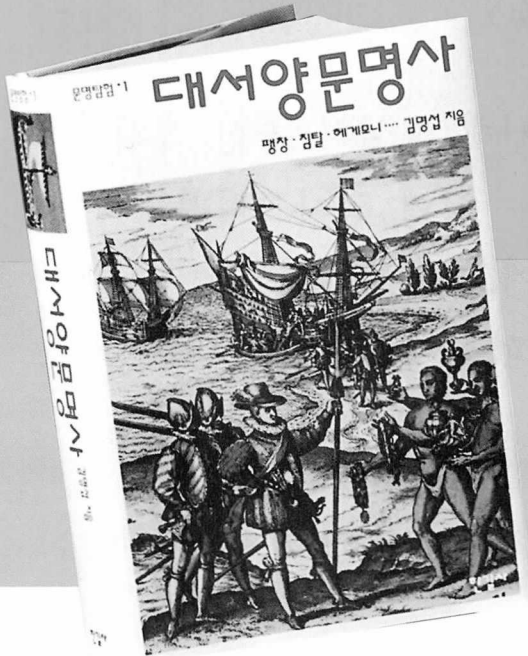
이슬람문명과의 경쟁에서 군사, 학문, 종교 등의 다양한 표준을 흡수한 두 나라는 아프리카와 신대륙을 잇는 기독교적 표준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로써 대서양은 기독교적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고 신대륙의 발견과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에스파냐 제국의 쇠퇴로 헤게모니는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간다. 네덜란드가 중개무역과 금융의 발전에 힘입어 프로테스탄트적인 표준을 확립했다면, 영국은 선진표준을 재빨리 흡수하고 해군력과 군사력, 산업발전, 노예무역 등에 힘입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성립시켰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과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서양 좌안을 정복하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흡수하는 등 특유의 개방정신으로 대서양 표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교수는 이렇게 긴 호흡의 대서양문명사를 서술하면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거나 혹은 거꾸로 침탈받은 나라들의 문화나 풍습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 서술들은 숨가쁘게 진행되는 역사 서술의 흐름을 멈추고 잠시 숨들릴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사회적 특징들이 어떻게 민족 혹은 국가적 기질로 발전해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우리만의 표준 만들어 세계화의 나침반으로 이용해야

이슬람에서 현재 미국에 이르기까지 대서양 문명의 표준은 타자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그 타자 즉 비서구 세계를 침탈하고 식민지화함으로써 주변으로 밀어냈다.

“제가 말하는 헤게모니는 패권과는 달리 자발적 동의까지 포함하는 무력·강압을 의미합니다. ‘문명’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야만적 침탈’이 깔려 있는 셈이죠. 이 헤게모니가 형성돼온 역사를 살피으로써 민족의 생존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길사/A5신/760면/35,000원

그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대서양문명사를 집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미국적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그 표준이 형성돼온 세계사를 우리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나침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가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톨레랑스 정신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라들이 결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선행 문명의 표준을 흡수하면서 나선형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대서양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라들은 선행 패권국의 기술과 제도, 사상과 문화,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데 열성이었다.

“이제 우리식의 톨레랑스, 즉 관용과 포용으로 우리식의 표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외한국인 문제, 북한 문제, 재한외국인 문제 등 우리 내부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적 톨레랑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허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교수는 국제적 표준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포용과 관용으로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과 서양 사이의 지적 공백 메울 수 있는 연구 절실해

김교수는 만 4년 동안 이 책에 매달렸다. 처음 이 책을 발상하게 된 것은 1990년 유럽으로 유학갔을 때다. 그가 유럽에 도착한 해는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하던 때였는데, 그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만 전망하는 국제정치 모델링에 한계를 느꼈다. 좌우파 이론을 넘어 문명적 시각으로 국제정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역사적 접근법이었다. 역사적 접근법은 엄밀한 과학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개연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 이미 이런 접근법 자체가 그에게는 오히려 잘 맞는 옷이었는지 모른다.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인 1989년 그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한

길사) 4권과 6권을 기획했다. 한국정치사에 관한 자신의 석사논문을 그 책에 실었고, 북한현대사 부분을 직접 집필했다. 결국 그는 유럽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역사로 회귀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교수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이 책의 구상은 그의 학문적 여정과 함께 해왔다.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자본주의 시대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런 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역사학자가 보기에 제가 시도한 ‘거대담론적 역사 서술’은 허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치밀한 역사 서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긴 호흡의 역사적 통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혜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정부나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국학 연구지원은 많은 편이지만 서양과 관련된 학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김교수는 한국학과 서양학문 사이에 생겨난 지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서양 학문 전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교수의 다음 작업은 태평양이다. 마젤란에 의해 태평양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이래 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작업은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거대한 문명의 파노라마 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책에서는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서양에서 문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광활한 태평양이 어떤 색깔로 그의 책 안에서 물결칠지 무척 기대된다. —김장근 기자

1980년대가 사유와 글쓰기에 영향 줬

김명섭 교수는 연세대 정외과 83학번이다. 그 어려운 시절을 그는 ‘학내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적어도 피하지는 말자’고 생각하며 버텼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계속될 것이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학회를 활성화하고 현실 문제를 학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강의 시간에 마치 운동권 동아리의 세미나를 연상시킬 만큼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1980년대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교수는 ‘사상의 백가쟁명 시대’라고 규정한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시각에서 세계와 역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1980년대에 이런 생각들이 그의 사유와 글쓰기에 밑바탕이 됐다.

그는 자신의 책을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푸른나무)에 비유한다. 이 책이 비록 다양한 자료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역사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양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세계사를 서술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 이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아니라 ‘바로 읽는 세계사’를 서술할 때가 됐다고 그는 말한다. 바다를 매개로 한 그의 세계사 작업 역시 바로 읽는 ‘우리만의’ 세계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